작전명 율법, 그 전모를 밝힌다

(갈3:19~29)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작전명 율법, 그 전모를 밝힌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작전의 전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전이라고 하면 주로 군사적 행동과 관계 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작전이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 때 가까이는 인천상륙작전을 기억할 수 있고, 저 멀리 1944년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펼친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노르망디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본토로 진격을 해 들어가야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을 주축으로 해서 독일본토 진격을 위한 교두보확보하게 됩니다.
이 교두보확보를 위한 작전을 '마켓가든 작전'이라고 해요.
라인 강이 독일을 통과해서 네덜란드로 지나는 다리를 확보함으로써 독일본토 진격의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했던 작전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사에 남을 참담한 전쟁을 치른 뒤에 실패하게 됩니다.
독일의 항전에 그만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1944년 6월 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으니까, 몽고메리는 그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이 '마켓가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의 성공에 의해 굉장히 up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마켓가든 작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3500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작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까지.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작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작전명 '율법'이라는 것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 작전으로서의 율법의 전모가 어떻게 돼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얘기에요.

자, 이 작전을 수행하시기 위한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독일군이 프랑스까지 완전히 점령한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전세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작전을 짜고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상황파악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절에 보면 '범법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즉 범법함의 상황에 율법이 더해진 겁니다.
율법이라는 작전은 범법함의 상황에 주어진 것인데, 이 범법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선을 넘었다는 범법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이 주어져야 범법함인지 범법함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범법, 죄를 범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서만 우리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율법 이전에 범법함이 있었는데 그 범법함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법함이 뭔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요약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처럼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마음을 바람직한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이 생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 자체는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채택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돈보다 1등을 하셨고, 권력보다 1등을 하셨고, 무병장수보다 1등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가정의 안정보다 1등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 상태에서 범법함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범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등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1등인 상태, 가정의 안정이 1등인 상태, 부귀영화가 1등인 상태, 이런 상태가 범법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행위 이전에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죄라면 죄도 행위 이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의 차원에서 마음을 무엇에 주느냐, 내 마음에서 어느 무엇이 1등을 하느냐에 죄가 결정되는 거라 이겁니다.
범법함이란 게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을 못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 범법함의 상태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선악과를 안 먹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으로 좋은 것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비었어요.
좋은 걸 판단해야 좋은 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고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는 좋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그래서 에덴, 기쁨의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장사를 크게 해보고 싶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싶다, 나라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멋진 이성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 내 인생을 명예와 인기로 가득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일궈내고 싶다.
이런 모든 마음가짐들이 하나도 죄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조차도 이런 식의 내용물들을 마음 안에 담고 있습니다.
나라의 번영,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데 누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라가 잘돼야 내가 잘되고 내 가족이 잘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작전을 개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작전이 시작되느냐?
전체 작전명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작전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전체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작전을 투입하신 겁니다.
먼저, 인정하시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뭘 인정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효과에 지금 취해서 선악을 판단해요.
좋은 걸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빈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기 위해서 좋은 걸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좋다, 권력이 좋다, 무병장수가 좋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좋다, 이러한 선악과에 취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인정을 일단은 해버리십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인정하자, 그게 축복이라고 하자!'
그래서 구약의 축복관이 팔복으로 대표되는 신약에서의 축복 내용과 너무나 많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부귀영화라든지 무병장수라든지 가정의 안정이나 국가의 번영 같은 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물들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재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실행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이루시려는 뜻을 위해서 나를 대통령이 되게도 수위가 되게도 하십니다.
우열이 없는 거예요, 우열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일단은 축복이라고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단계를 전혀 죄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인정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당신을 알리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의 내용물들, 부귀영화, 건강, 가정의 안정과 민족의 번영, 이런 것들을 바로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책임자이고 주관자이며 나의 소유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있긴 있었지만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사망의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과 더불어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계시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영화, 돈, 권력, 승진, 가정의 안정, 국가의 번영, 이런 것들 다 내가 주관하는 거다, 내가 바로 그 주관자! 라는 걸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율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 그게 다 내가 주관하는 거니까, 내가 제시하는 율법만 지키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한테 주겠다.
지금 이게 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율법이 나왔어요.
율법만 지키면 너희가 좋다고 하는 그것들, 실은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갖기만 하면 돈이나 권력은 좋은 축에도 못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인들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잃고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머리 둘 곳도 없으면서도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사신 거예요.
근데 하도 좋다고 하며 그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인 걸 죄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다 인정하시고 율법만 지키면 내가 주겠다고 해버리신 겁니다.
이게 구약을 이해하기 위한 key라는 거예요, key.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key 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십계명을 보면 못 지킬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뭐 못 지킬 게 뭐 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다음 것들도 다 뭐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도 다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다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을 까보면 이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부러워하는 것, 탐하는 거 아닙니까? 약 올라 하는 것 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나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
율법을 줬는데 못 지켰어요, 뭐 별 것도 아닌 거 같은데도 결국 못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못 지켰느냐?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해서 쫓겨날 정도로 못 지켰습니다.
모세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율법 말씀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왜 못 지켰는가를 한 번 살펴봅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에요, 이제 죄의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못 지켰는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키기 쉽게 보여도 못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지킬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돈이 들어와 있고 권력이 들어와 있고 성공과 승진과 자식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면서 말씀을 줄 때는 절대로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첫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신'이 뭡니까?
여기서 신은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게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만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신인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야 만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식이 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1계명에서 다 어긋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요.

그토록 젊은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가 생겨서 아침 일찍 데이트 시간을 잡으면, 두 시간 전에 일어나 꽃단장을 하고 나갑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있어야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새삼스럽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를 봤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신 이 상태가 죄로구나, 그러므로 믿음이 행위 이전의 일인 것처럼 죄라는 것도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나는 하나님만 들어와 계셔야 할 내 마음속에 온갖 것, 나라와 가정과 내 인생과 자녀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에 담음으로써 내 마음이 얼룩지고 죄로 가득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못 지킴을 통해서.
왜 못 지켰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시니까 못 지켰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꾸 이 세상의 돈을 소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원하고 가정의 번영, 나라의 번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계획의 재료들일 뿐인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십자가사건이 임한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걸 안타깝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복음이란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돈을 집어넣어놓고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사건이 기쁨의 소리일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선악의 판단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판단을 아무리 해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머리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버렸어요, 그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어요, 내 옆구리에 창이 박힌 거예요.
주님의 손발에 포개져서 못이 박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손과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판단하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버렸습니다.
이 세상 것을 소원하는 힘조차 없게끔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에 내 죽음을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포개져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릴 때 드디어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도 사업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사업이 위급하면 내가 뛰어야 할 것 같잖아요,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손을 대야 될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떼 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마음에 자식이 들어와서, 마음에 사업이 들어와서, 마음에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전명 율법, 그 율법이라는 작전의 전모에요.
한번 거듭 들어보시면서 율법이라는 작전의 전모를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넣으면, 왜 우리가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을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만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진짜 축복의 내용, 참 축복의 내용, 유일한 축복의 내용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작전을 수행하셨으니, 작전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주시려는 축복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나의 몫으로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